ISSN 1225-9055
https://data.doi.or.kr/10.22885/KRDA.2020.32.4.27

Journal of the Korean Regional Development Association Vol.32 No.4 (2020)
한국지역개발학회지 제32권 제4호 2020.11/32(4): 27~42

COVID-19 시대의 Korea 뉴딜의 성공전략: 교육뉴딜을 중심으로*

기 정 훈** · 조 덕 호***

Successful Strategies of the Korea New Deal in the COVID-19 Era: Focused on the Education New Deal

Ki, Jung Hoon · Cho, Deok Ho
Professor, Myongji University · Professor, Daegu University

Abstract: The era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s rapidly developing into an intelligent society beyond a knowledge society. However, 'staying here' can be an economically prosperous society, but it can never be a happy one. We must make sure that all members of society go to a happy society, which is practicable through people armed with community values and creativity. Tripod never falls easily, and if Korea New Deal and Education New Deal are fused, they will be able to continuously provide creative ideas. In the COVID-19 era, the convergence triangle pedestal (or Tripod) of digital + green + education New Deal will guide our country into a wise and happy society. This will be a leading navigation system that will not fall on either side, converge and balance each other, and guide the Republic of Korea to a new world that no one has ever been to, while realizing the global economy and community values in the future. Therefore, with the introduction of the Tripod New Deal beyond the current two legged Korea New Deal, strategies for the successful convergence of the three bridges (digital + green + education) should be urgently prepared.

Key Words: 코로나-19(COVID-19), Korea 뉴딜(The Korea New Deal), 교육 뉴딜(Education New Deal), 삼각대 뉴딜(Tripod New Deal), 선도국가(First Mover Country)

* 본 연구는 2020년 명지대학교 교책연구소 지원을 받아 수행하였습니다.
** 명지대학교 교수(주저자)
*** 대구대학교 교수(교신저자)

1. 서 론

4차 산업사회발전의 관통하는 논리는 인간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수학적으로 모델화하여 기계(AI와 IoT)에 적용해 사회생활에 활용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두 다리로 설 수는 있지만 약간 불안정하다. Fast follower에서 First mover로 가기 위해서는 Korea 뉴딜(디지털+그린)이 성공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도덕과 공동체 가치로 무장된 창의적 인재(교육)육성이 추가되어야 한다.

코로나19로 많은 것이 변화되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세계 주요 선진국들은 4차 산업사회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으며, 코로나19 이후 사회는 크게 두 방향으로 발전하게 될 것이다. 하나는 자연 질서와 조화를 이루려는 농경사회로의 회귀 즉, 탄소 제로를 지향하는 그린 정책이다. 또 하나는 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과 사물인터넷(IoT: internet of things)으로 대표되는 디지털 정책으로 4차 산업사회로 발전하게 될 것이다.

우리 정부도 이와 같은 변화의 흐름을 선도하기 위해, 올해(2020) 전반기에 7월17일 전북 부안군 해상풍력 실증단지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그린 에너지 현장'에서 Korea 뉴딜정책(디지털 + 그린 뉴딜)을 발표하였다. Korea 뉴딜은 두 조건을 모두 만족시켜 바람직한 것처럼 보이지만, 아무도 가지 않는 선도국으로 발전하기에는 부족한 측면이 있다.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은 빠른 추종자(fast follower)에게는 매우 적합하지만, 4차 산업사회를 주도할 선도국(first mover)으로 성장하기에는 방향성, 지속가능성, 고용 창출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

우리나라가 코로나-19를 성공적으로 극복하고 있는 이유는 단순히 방역 당국의 노력과 진단기술뿐만 아니라 '나'가 아닌 '우리'라는 공동체 의식 유전자에서 찾을 수 있다. 공동체 가치와 창의력으로 무장되지 않고 기술만 발전하면, 추종 도중에 넘어지기 쉬울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선도국으로 가기 어렵다. 정부가 발표한 Korea 뉴딜정책에는 가장 핵심인 '누가' 이것을 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이 부족하다. 핵심은 바로 사람(human), 즉 교육(education)이다. 따라서 4차 산업사회의 선도국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도덕과 공동체 가치에 기반을 둔 창조적 상상력을 가진 인재의 다리 하나가 더 있어야 삼각대가 완성되며, 미래의 지속가능한 성장엔진(창의적 콘텐츠)이 끊임없이 충전되어 온 국민이 염원하는 4차 산업사회 선도국으로 갈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최근에 발표된 Korea 뉴딜의 구조와 투자계획 및 일자리 효과와 추진체계 등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서 현재 Korea 뉴딜의 한계와 약점을 통해서 보다 효과적이

고 효율적인 Korea 뉴딜의 방향을 제시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서 특히 전체적인 뉴딜의 틀을 바꾸기 위한 교육뉴딜을 제시하여 이를 통한 뉴딜의 안정적인 구조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노력은 총체적인 불경기를 겪고 있는 Covid-19 시대에 Korea 뉴딜이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되며 지속가능한 정책 성과를 내기 위해서도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학술적 접근보다는 당위론적 접근을 선택하였다. 그리고 Korea 뉴딜의 중요한 한 축이 되어야 하는 교육 뉴딜의 구체적인 정책이나 전략을 제시하는 것을 통해서 그 당위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러한 교육 뉴딜이 가져올 수 있는 Korea 뉴딜의 새로운 강점이나 이익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와 함께 기존의 Korea 뉴딜과 교육 뉴딜이 보완되는 새로운 Korea 뉴딜을 지속가능성, 고용 창출, 공동체 가치, 사회적 갈등, 기술발전과 성장엔진, 국제적인 공유 가능성, 수업 방법 혁신, 교육방식 및 인프라, 교육내용 전환, 교육성과 평가, 발전 방향, 궁극적 삶의 방향의 측면에서 다각적으로 살펴봄을 통해서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새로운 Korea 뉴딜의 미래지향적 성격과 지속가능성을 논의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관련된 선행 연구들이 상당히 부족한 상황에서 Korea 뉴딜의 현황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방향성과 보완의 필요성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나름의 차별성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2장에서는 Korea 뉴딜의 등장을 살펴본 후에 3장에서는 교육 뉴딜이 포함된 새로운 Korea 뉴딜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4장에서는 교육 뉴딜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5장에서는 기존의 Korea 뉴딜과 새로운 Korea 뉴딜의 비교를 통해서 그 시급성을 강조한다. 마지막 6장은 결론과 정책적 시사점으로 구성된다.

2. Korea (디지털+그린) 뉴딜의 등장

2.1. Korea (디지털+그린) 뉴딜의 배경과 조건

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7월17일 전북 부안군 해상풍력 실증단지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그린 에너지 현장'에서 Korea (디지털+그린) 뉴딜을 발표했다. Korea 뉴딜에는 그 이론적 배경과 실행을 위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

Korea 뉴딜의 이론적 배경은 콘드라티에프 주기(Kondratiev Cycle) 모델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콘드라티에프 주기 모델은 40~60년을 하나의 주기로 해 일련의 기술혁신에

의해 경제가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과정을 설명하며 산업혁명 이후 최근까지 모두 5번의 주기적 변동이 진행되었다. 먼저 산업혁명 직후의 1차주기(1780~1830)에서는 스팀 엔진이, 2차주기(1830~1880)에는 철강과 철도가, 3차주기(1880~1930)에는 전기와 화학이, 4차주기(1930~1970)에는 자동차와 석유화학이, 5차주기(1970~ 2010)에는 정보통신기술(ICT)이 역동적 경제변화를 이끌었고 2010년 이후에는 환경기술과 바이오건강기술이 주도하는 새로운 6차 주기가 개막되고 있다는 것이다. 디지털 기술과 그린 기술이 현 시기의 역동적 경제발전을 이끄는 프론티어 기술이라고 볼 때, 정부가 이 두 가지 기술을 중심으로 K-뉴딜을 추진하는 것은 콘드라티에프의 5차, 6차주기를 앞서가고자 하는 매우 미래지향적인 선택이라고 볼 수 있다.

Korea 뉴딜은 사회적 대화와 새로운 사회협약 체결이라는 조건을 가지고 있다. 뉴딜(New Deal)의 사전적 의미는 '새로운 약속이나 계약 또는 협약을 맺는다'는 뜻이다. 이 의미를 고려할 때, 이번 Korea 뉴딜은 많은 이해당사자들 사이에 충분한 사회적 대화와 이를 통한 새로운 사회협약 체결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 그 조건이라고 볼 수 있다.

2.2. Korea (디지털+그린) 뉴딜의 필요성과 미래 변화상

Korea 뉴딜의 필요성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저성장·양극화 심화에 대응하여 경제 패러다임 전환이 일어나고 있고 이를 대응하기 위한 국가의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둘째, 예기치 못한 코로나-19 충격이 대공황 이후 전례 없는 경기침체 초래했고 이러한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국가의 역할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셋째, 미국의 뉴딜정책에 버금가는 「한국판 뉴딜」의 추진을 통해서 위기 극복과 코로나 이후 글로벌 경제 선도를 위한 국가발전전략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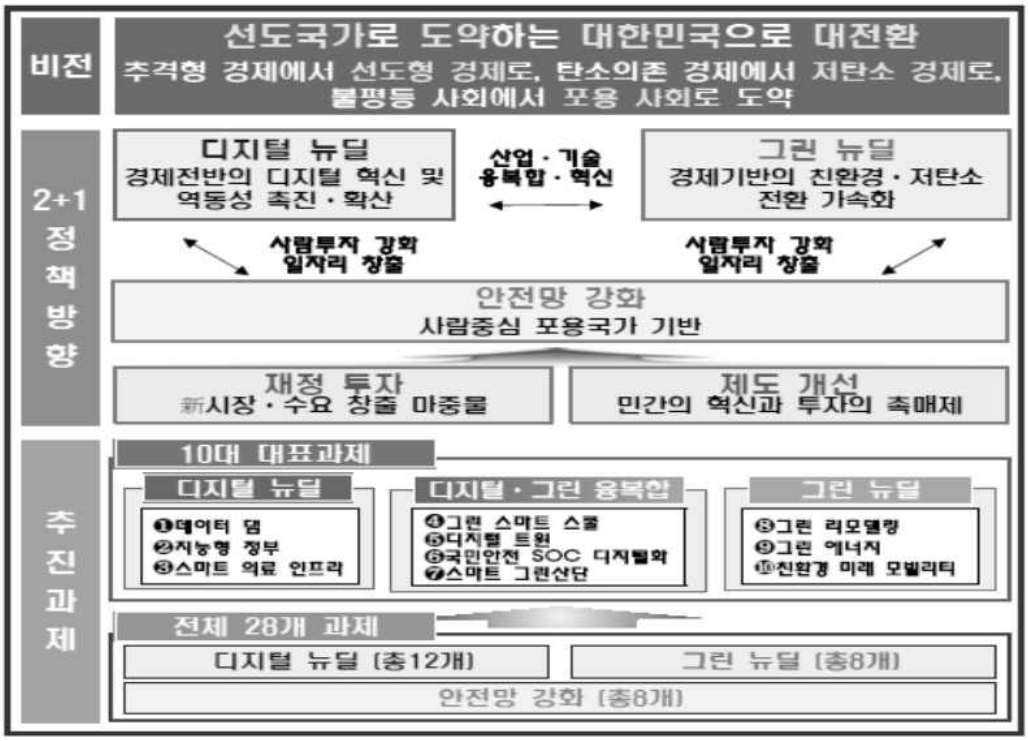
코로나19에 따른 사회 및 경제적 구조적 변화의 특징은 무엇보다도 비대면 수요가 급증하면서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된다는 점이다. 최근 Microsoft사의 대표인 Satya Nadella가 코로나19로 2년간 일어날 디지털 변화를 2개월 만에 경험했다고 할 만큼 디지털 경제로의 변화는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저탄소 · 친환경 경제에 대한 요구가 증대한다는 점에서도 그린 경제로 전환이 시급히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경제 · 사회구조 대전환과 노동시장 재편과 이에 따른 양극화 심화 역시 Korea 뉴딜의 필요를 잘 드러낸다.

한국판 뉴딜이 추구하는 우리 경제 · 사회의 미래 변화상은 다음의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D·N·A(Data Network AI) 기반을 바탕으로 혁신과 역동성이 확산되는 디지털 중심지로서, 글로벌 메가트렌드를 주도하는 '똑똑한 나라'이다. 둘째, 탄소중립(Net-zero)을 향

한 경제·사회의 녹색전환을 통해, 사람 환경성장이 조화를 이루며 국제사회에 책임을 다하는 '그린선도 국가'이다. 셋째, 튼튼한 고용·사회 안전망과 사람에 대한 투자가 국민의 삶과 일자리를 지켜주고 실패와 좌절에서 다시 일으켜주는 '더 보호받고 더 따뜻한 나라'이다.

2.3. Korea (디지털+그린) 뉴딜의 구조, 투자계획, 추진체계 및 일자리 효과

Korea (디지털+그린) 뉴딜의 구조는 아래의 〈그림 1〉과 같이 비전과 (2+1) 정책방향, 그리고 10대 대표과제와 28개의 과제로 이루어진 추진과제로 이루어진다. 이를 살펴보면 크게는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로 구성되고 이를 뒷받침하는 안전망 강화가 추가된다. 전체 28개 추진 과제들은 디지털 뉴딜이 12개, 그린 뉴딜이 8개, 그리고 안전망 강화가 8개를 구성한다. 특히 디지털 뉴딜에서 데이터 댐, 그린 뉴딜에서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는 4차 산업혁명과도 밀접한 관계를 가지며 진행될 수 있는 의미 있는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자료: 관계부처합동(2020),「한국판 뉴딜」종합계획–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으로 대전환 –, 2020년7월14일.

〈그림 1〉 Korea (디지털+그린)뉴딜의 구조

Korea (디지털+그린) 뉴딜의 투자계획 및 일자리 효과는 아래의 〈표 1〉과 같다. 이 자료에 따르면 2020년에서 2022년까지의 투자계획은 49조원이고 2020년에서 2025년까지의 투자계획은 114조원이며, 이를 통한 일자리 효과는 약 190만개가 될 것이라고 예상한다. 천문학적인 투자와 일자리 효과를 위해서 정부 및 공공분야 뿐만 아니라 민간분야와 NGO분야까지도 공동으로 협력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고 이에 대한 성과 및 보상체계도 구축되어야 한다. 특별히 Covid-19시대에 재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고통의 나눔이 요구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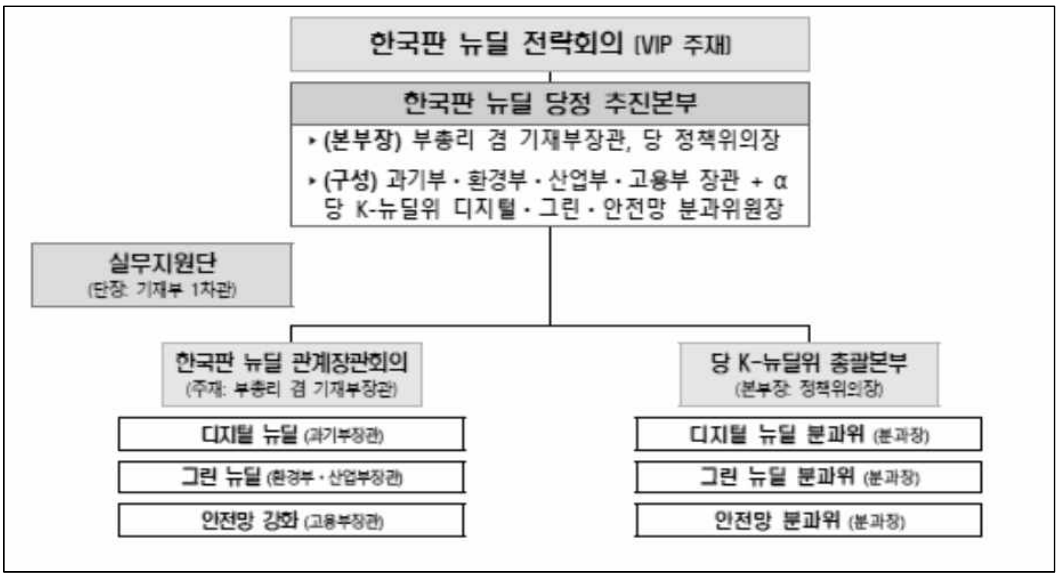
〈표 1〉 Korea (디지털+그린)뉴딜의 투자계획 및 일자리 효과

(단위: 국비(조원), 일자리(만개))

	분 야	과 제	'20후~'22	'20후~'25	일자리
총 계			49.0	114.1	190.1
디지털 뉴딜	합 계		18.6	44.8	90.3
	1. D.N.A 생태계 강화	소 계	12.5	31.9	56.7
		[1]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 데이터 구축·개방·활용	3.1	6.4	29.5
		[2] 1·2·3차 全산업으로 5G·AI 융합 확산	6.5	14.8	17.2
		[3] 5G·AI 기반 지능형 정부	2.5	9.7	9.1
		[4] K-사이버 방역체계 구축	0.4	1.0	0.9
	2. 교육 인프라 디지털 전환	소 계	0.6	0.8	0.9
		[5] 모든 초중고에 디지털 기반 교육 인프라 조성	0.3	0.3	0.4
		[6] 전국 대학·직업훈련기관 온라인 교육 강화	0.3	0.5	0.5
	3. 비대면 산업 육성	소 계	1.1	2.1	13.4
		[7] 스마트 의료 및 돌봄 인프라 구축	0.2	0.4	0.5
		[8] 중소기업 원격근무 확산	0.6	0.7	0.9
		[9] 소상공인 온라인 비즈니스 지원	0.3	1.0	12.0
	4. SOC 디지털화	소 계	4.4	10.0	19.3
		[10] 4대 분야 핵심 인프라 디지털 관리체계 구축	3.7	8.5	12.4
		[11] 도시·산단의 공간 디지털 혁신	0.6	1.2	1.4
		[12] 스마트 물류체계 구축	0.1	0.3	5.5
그린 뉴딜	합 계		19.6	42.7	65.9
	5. 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 전환	소 계	6.1	12.1	38.7
		[13] 국민생활과 밀접한 공공시설 제로에너지화	2.6	6.2	24.3
		[14] 국토·해양·도시의 녹색 생태계 회복	1.2	2.5	10.5
		[15] 깨끗하고 안전한 물 관리체계 구축	2.3	3.4	3.9
	6.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	소 계	10.3	24.3	20.9
		[16] 에너지관리 효율화 지능형 스마트 그리드 구축	1.1	2.0	2.0
		[17] 신재생에너지 확산기반 구축 및 공정한 전환 지원	3.6	9.2	3.8
		[18] 전기차·수소차 등 그린 모빌리티 보급 확대	5.6	13.1	15.1
	7.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소 계	3.2	6.3	6.3
		[19] 녹색 선도 유망기업 육성 및 저탄소·녹색산단 조성	2.0	3.6	4.7
		[20] R&D·금융 등 녹색혁신 기반 조성	1.2	2.7	1.6
안전망 강화					
합 계			10.8	26.6	33.9
	1. 고용사회 안전망	소 계	9.3	22.6	15.9
		[21] 全국민 대상 고용안전망 구축	0.8	3.2	-
		[22] 함께 잘 사는 포용적 사회안전망 강화	4.3	10.4	-
		[23] 고용보험 사각지대 생활·고용안정 지원	3.0	7.2	3.9
		[24] 고용시장 신규진입 및 전환 지원	0.9	1.2	11.8
		[25] 산업안전 및 근무환경 혁신	0.3	0.6	0.2
	2. 사람투자	소 계	1.5	4.0	18.0
		[26] 디지털·그린 인재 양성	0.5	1.1	2.5*
		[27] 미래적응형 직업훈련 체계로 개편	0.6	2.3	12.6*
		[28] 농어촌·취약계층의 디지털 접근성 강화	0.4	0.6	2.9

자료: 관계부처합동(2020),「한국판 뉴딜」종합계획-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으로 대전환 -, 2020년7월14일.

마지막으로 Korea (디지털+그린) 뉴딜의 추진체계는 아래의 〈그림 2〉와 같다. 여기에서는 대통령 주재의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중심으로 그 아래에 한국판 뉴딜 당정 추진본부를 두고 있다. 당정 추진본부의 본부장은 부총리 겸 기재부장관과 당 정책위의장이 맡게 된다. 당정 추진본부 아래에는 기재부 1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실무지원단을 두고 있으며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와 당 K-뉴딜위 총괄본부를 두고 있다. 관계 장관회의는 부총리 겸 기재부장관이 주재하고 디지털 뉴딜은 과기부장관이, 그린 뉴딜은 환경부장관, 산업부장관이, 안전망 강화는 고용부장관이 맡게 된다.



자료: 관계부처합동(2020),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으로 대전환 –, 2020년7월14일.

〈그림 2〉 Korea (디지털+그린)뉴딜의 추진체계

3. Korea 삼각대 (디지털+그린+교육) 뉴딜의 필요성

3.1. 시대적 요청과 Korea (디지털+그린) 뉴딜의 한계

Korea (디지털+그린) 뉴딜은 제4차 산업사회의 도래로 그 필요성이 나타났다. 4차 산업사회 발전의 관통하는 논리는 인간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수학적 모델로 개발하여 기계(AI와

IoT)에 적용시켜 사회생활에 활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제4차 산업사회의 경쟁력에서 추종자(fast follower)에서 선도국(first mover)으로 가기 위해서는 Korea (디지털+그린)뉴딜이 성공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도덕과 공동체 가치로 무장된 창의적 인재(교육)가 지속적으로 공급되어야 한다. 디지털과 그린이라는 두 다리로는 불안하지만 디지털, 그린과 교육이 포함된 삼각대는 결코 쉽게 넘어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코로나-19 이후의 경제 및 사회적 변화는 Korea (디지털+그린) 뉴딜의 한계를 보여준다. 세계 주요 선진국들은 4차 산업 사회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으며, 코로나19 이후 사회는 크게 두 방향으로 발전하게 될 것이다. 하나는 자연 질서와 조화를 이루려는 농경사회로의 회귀 즉, 탄소 제로를 지향하는 그린 정책이며 또 하나는 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과 사물인터넷(IoT: internet of things)으로 대표 되는 디지털 정책이다.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은 빠른 추종자(fast follower)에게는 매우 적합하지만, 4차 산업사회를 주도할 선도국(first mover)으로 성장하기에는 방향성, 지속가능성, 고용창출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

3.2. 대한민국의 저력과 핵심가치로서의 교육

대한민국이 현재까지 코로나-19의 극복의 원인을 살펴보자. 대한민국이 코로나-19를 성공적으로 극복하고 있는 이유는 단순히 방역 당국의 노력과 진단 기술만은 아니다. '나'가 아닌 '우리' 라는 공동체 의식에서 찾을 수 있다. 역사적인 사례를 통해서 볼때에 공동체 가치와 창의력으로 무장되지 않고 기술만 발전하면, 추종 도중에 넘어지기 쉬울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선도국으로 가기 어렵다는 것이 사실이다.

여기에서 우리가 다시 살펴보아야 할 것은 핵심가치 로서의 '교육'이다. 우리나라 정부가 발표한 Korea (디지털+그린) 뉴딜정책에는 가장 핵심인 '누가' 이것을 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이 매우 부족하다. 그런데 이러한 정책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한 핵심은 바로 사람(human), 즉 교육(education)임을 알아야 한다. 모든 것은 다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4차 산업사회의 선도국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도덕과 공동체 가치에 기반을 둔 창조적 상상력을 가진 인재의 다리가 하나가 더 있어야 삼각대가 완성될 수 있고 미래의 지속가능한 성장엔진(창의적 콘텐츠)이 끊임없이 충전되어 온 국민이 염원하는 4차 산업사회 선도국이 될 수 있을 것이다.

4. 교육(education) 뉴딜의 중요성

4.1. 대한민국 교육의 근본적인 과제

교육 뉴딜의 중요성은 우선 대한민국 초중고 교육의 문제점에서부터 살펴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교육체계는 이미 0교시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이어지는 지식교육 때문에 교육의 가장 중요한 핵심인 도덕과 윤리, 그리고 삶의 지혜에 대한 교육을 포기하였다. 그 결과 우리 교육은 덩치는 크지만, 운동 부족으로 형편없는 체력과 놀 줄 모르고 창의성에 필요한 예술이나 철학을 포함한 인문학적 지혜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휴대폰으로 거의 다 검색할 수 있는 엄청난 지식을 머릿속에 담고 있는 학생을 생산하고 있다는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대학교육은 어떠한가? 천신만고 끝에 수능 관문을 통과하여 수능점수 순으로 대학에 들어오자마자 취업 준비를 위해 수십만 명이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는 참 안타까운 현실이다. 우리들의 부모세대는 비록 지식은 부족하지만, 삶에 대한 깊은 지혜가 있기 때문에 국가발전이라는 놀라운 성과를 만드는데 성공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학생들이 서로 경쟁하지 않고 전국의 학생들 머릿속에 있는 상상력을 공유하는 교육은 불가능한 것일까? 핵심은 지혜로운 사람(wisdom) 교육이고, 이를 이루기 위한 교육(education) 뉴딜이 만들어져야 한다.

4.2. 교육(education) 뉴딜의 방향

이제 머릿속에 지식을 채우는 가르치고 배우는 교육(teaching and studying)은 기술적으로는 분야별로 전 세계에 1명이면 가능한 시대가 되었다. 교육법 전면 개정(고등교육법 포함)으로 교육 내용 특성에 따라 온라인·대면 방법의 융합을 통해서 역할을 분담하여 교육 효과를 극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야 교육 뉴딜이 성공할 수 있다. 지식교육은 온라인 교육의 비중을 높이고, 공동체 가치 및 창의성은 대면 방식으로 학생들의 궁금증과 창의성을 듣는 수업 혹은 함께 하는 수업(doing by learning)으로 변해야 한다.

창의성 교육은 '강의하는 학생과 이를 듣고 궁금증을 함께 고민하는 교수'의 교육혁신이 이루어져야 선도국으로 갈 수 있는 창의력을 지닌 인재를 육성과 함께 새로운 고용 창출로 교육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 튼튼한 몸, 도덕과 공동체 가치, 예술과 인문학의 기반 상상력을 수학으로 모델화할 수 있는 창조적 인재 교육, 즉 "교육(education) 뉴딜"이 가장 우선으로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4.3. 교육(education) 뉴딜의 실현과 핵심내용

제4차 산업혁명시대 교육은 '어떻게(how)'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왜(why)'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고, 미래의 인재는 노하우(know-how)보다는 노와이(know-why)에 대한 철학을 가진 창조적 선도자이어야 한다. 교육 뉴딜의 핵심내용은 교육 환경의 디지털화(전국 교실의 디지털 책상 교체)로 교육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며, 소규모 창의성 수업(학생중심)을 실현하기 위한 교육지원 인력을 대폭 확충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실천전략은 교육대상, 교육기간, 사회적 수요, 정책목표 등을 감안하여 세분화되어야 하며, 이는 교육환경의 근본적인 개선과 획기적인 고용창출을 가능하게 한다. 이를 통해서 교육 뉴딜 정책은 모든 학생들에게 행복한 학교를 만들어줄 수 있을 것이다. 다음은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교육 뉴딜의 주요한 내용들이고 기정훈(2020)의 2020년 학술발표를 기초로 하여 작성되었다(기정훈, 2020).

4.3.1 교실의 디지털화 완성 및 지속적 관리

교실의 디지털화 완성 및 지속적 관리를 위해서는 다음의 세 가지 전략이 필요하다. 첫째, 초·중·고 교실 온라인 및 오프라인 교육 시설 완비와 이를 위한 고용 창출이 있어야 한다. 둘째,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융합된 교육 기반 구축과 디지털 인력 양성이 필요하다. 셋째, 교육 방법에 따른 역할 분담이 있어야 한다. 여기에는 온라인 교육(지식교육), 오프라인 교육으로 나뉘지만그 내용은 창의성 및 공동체 가치 교육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

4.3.2 교육 시스템의 획기적인 개선

교육 시스템의 획기적인 개선이 있어야 하는데 여기에는 두 가지의 전략이 있다. 첫째, 학과목 당 교사의 수(기술지원 교사 포함)를 늘려서 토론 및 문제해결을 통한 교육으로 교육지원 인력의 대폭 확충이 필요하다. 둘째, 현장 체험교육의 대폭 확대 및 스스로 문제 해결하기는 소규모 그룹 수업의 확대를 해야 하고 이를 통해서 교사에 대한 고용 기회의 확대할 수 있다.

4.3.3 교육 내용의 획기적인 개선: e-교육 콘텐츠 구축

교육 내용의 획기적인 개선에는 e-교육 콘텐츠 구축이 있어야 한다. 이를 구축하기 위해

서는 필수 및 교양과목의 전면적인 조정이 필요하다. 커리큘럼을 e-교육 콘텐츠에 맞추어서 조정해야 교육 내용의 개선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가상현실과 동영상 기반의 교육 콘텐츠 개발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 마지막으로 교과목 특성에 따른 다양한 콘텐츠 개발 및 지속적인 업데이트가 있어야 이러한 개선을 지속할 수 있다.

4.3.4 코칭 기반의 교육 플랫폼 구축

코칭 기반의 교육 플랫폼 구축을 위해서는 두 가지의 구체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하나는 개인적 학업능력과 학습 성과에 기초한 개별 지도 및 교육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다. 둘째, 코칭 기반의 교육을 위한 교사 재교육 프로그램을 구축하는 것이다.

4.3.5 글로벌 교육 시장 개척과 개방 대처 방안 모색

글로벌 교육 시장 개척과 개방 대처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전략이 필요하다. 첫째, 글로벌 교육 콘텐츠를 활용하여 K 콘텐츠 개발을 위한 인력을 공급해야 한다. 둘째, 벤처 창·취업에 대한 지원 및 고용 활성화 대책을 세워야 한다. 셋째, 분야별 세계적인 글로벌 대학의 공격적인 육성 및 지원에 따른 신규인력을 고용해야 한다. 넷째, K 교육 콘텐츠의 공격적인 개방과 세계적 공유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4.3.6 Industry 4.0과 Labor 4.0의 일체화

Industry 4.0과 Labor 4.0의 일체화를 위해서는 다음의 다섯 가지 전략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첫째, 교육 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둘째, 현장과 교실의 융합으로 교육과 현장 부조화를 해결해야 한다. 셋째, 지속적인 재교육시스템의 구현으로 직장 내 디지털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 넷째, 사회적 약자에 대한 수준별 능력별 디지털 교육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다섯째, 기업 고용수요와 대학교육 내용을 상시로 교류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5. 기존 Korea (디지털+그린) 뉴딜과 Korea 삼각대 (디지털+그린+교육) 뉴딜의 비교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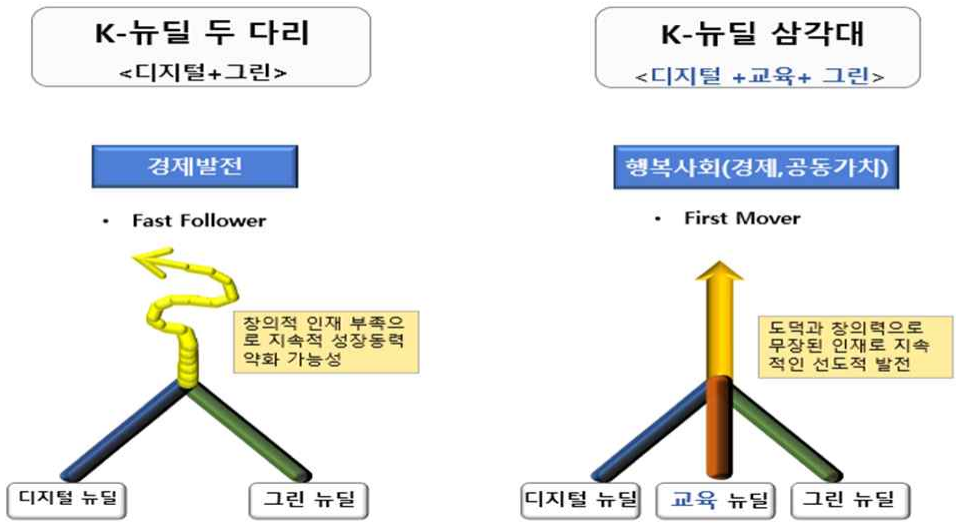
5.1. 기존 Korea (디지털+그린) 뉴딜의 한계와 새로운 Korea 삼각대 (디지털+그린+교육) 뉴딜

Korea 뉴딜은 반드시 성공하여야 하며, 이는 역사상 처음으로 맞이한 절호의 기회를 슬기롭게 대처하여 지금까지의 빠른 추종자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신천지인 4차, 5차 산업사회를 선도적으로 성공시켜야 할 중요한 역할을 전 국민이 나누어서 담당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경제성장과 고용 창출은 말할 것도 없고, 앞으로 공동체 모두의 행복과 지혜로운 사회로 발전하여야 하면, 공동체 가치와 발전 방법의 국제적인 협력이 가능한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디지털과 그린의 두 개의 분야로 이루어진 '두 다리' Korea 뉴딜은 우리나라 수준의 발전단계에 있는 나라에 적용할 수 있지만, 후발 개도국은 선택하기 어려운 방식이다. 그렇지만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디지털, 그린, 그리고 교육의 세 개의 분야로 이루어진 '삼각대' Korea 뉴딜은 국가의 발전단계나 지역 여건에 따라 우선순위를 두어 교육 뉴딜을 먼저 수행할 수도 있을 것이다.

5.2. 기존 Korea (디지털+그린) 뉴딜의 한계와 새로운 Korea 삼각대 (디지털+그린+교육) 뉴딜 비교 분석

기존 Korea (디지털+그린) 뉴딜과 새로운 Korea 삼각대 (디지털+그린+교육) 뉴딜을 비교분석하면 아래의 〈그림 3〉과 〈표 2〉와 같다. 비교 영역에는 지속가능성, 고용창출, 공동체 가치, 사회적 갈등, 기술발전과 성장엔진, 국제적인 공유 가능성, 수업 방법 혁신, 교육방식 및 인프라, 교육내용의 전환, 교육성과 평가, 발전방향과 궁극적인 삶의 방식이 포함된다.



〈그림 3〉 기존 Korea (디지털+그린) 뉴딜과 새로운 Korea 삼각대 (디지털+그린+교육) 뉴딜

〈표 2〉 기존 Korea (디지털+그린) 뉴딜과 새로운 Korea 삼각대 (디지털+그린+교육) 뉴딜 비교분석

구분	Korea 두다리 (디지털+그린)뉴딜	Korea 삼각대 (디지털+에듀+그린)뉴딜
지속가능성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함	창의적 인재로 통한 신산업 및 성장 동력 자동확충
고용 창출	효과 있음	효과 증대(교육 인력 추가확충)
공동체 가치	방향성이 불분명 (분야별 이해관계의 상충 가능성)	도덕과 및 공동체 가치로 무장
사회적 갈등	빈부격차 및 디지털 격차의 확대 가능성	갈등 해소 및 공평한 사회로 발전
기술발전과 성장엔진	선진기술흡수, 지속적인 성장 동력 확보 어려움	도덕과 창의력으로 무장된 인재의 지속적인 제공
국제적인 공유 가능성	한국 사회 적용	발전단계에 따라 세계적인 공유가능
수업 방법 혁신	Teaching and Studying (가르치고 배우기)	Learning by Doing (education 4.0)
교육방식 및 인프라	효과적인 지식전달을 위한 치열한 경쟁(온라인 활성화)	창의적 지혜를 가진 think 4.0 형 인재육성(온라인, 대면 수업 공존)
교육내용 전환	이론과 일반론 중심의 내용	산업과 연계된 실무교육 중심의 내용
교육성과 평가	교과서 기반 교육 성과평가	실무적 응용과 창의력 중심 성과평가
발전 방향	빠른 추종자 (fast follower)	선도국가(first mover)
궁극적 삶의 방향	경제적인 성공	경제적 성공, 지혜롭고 행복한 삶

6. 결론과 시사점

본 연구의 결론에서는 Korea 삼각대 (디지털+그린+교육) 뉴딜의 성공전략과 Korea 삼각대 (디지털+그린+교육) 뉴딜의 성공을 위한 구체화 계획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한다.

6.1. 결론

제4차 산업혁명시대는 지식(knowledge)사회를 넘어 지능(intelligence)사회로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그렇지만 여기에 머물러서는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사회는 될 수 있지만 결코 행복한 사회가 될 수 있다. 우리는 반드시 사회 구성원 모두가 행복한 지혜 사회(wisdom society)로 가야만 하며, 이는 공동체가치와 창의력으로 무장된 사람을 통해서 실천 가능해진다. 삼각대는 결코 쉽게 넘어지지 않으며, Korea 뉴딜(디지털+그린)과 교육 뉴딜이 융합될 경우 지속적으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코로나-19 시대에 있어서 교육 + 디지털 + 그린 뉴딜의 융합 삼각 받침대는 우리나라를 지혜롭고 행복한 사회로 안내할 것이다. 이는 어느 쪽으로도 넘어지지 않고 서로 융합과 균형을 이루면서 향후 대한민국이 세계 경제와 공동체 가치를 구현하면서 아무도 가보지 않은 새로운 세상으로 잘 안내하는 선도적 내비게이션이 될 것이다. 따라서 Korea 뉴딜을 넘어 삼각대 뉴딜의 도입과 함께 세 다리(교육+디지털+그린)의 성공적인 융합을 위한 전략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세계 선도국으로 발전하는 핵심전략이 되어야 한다.

6.2. 시사점

기존의 디지털과 그린 뉴딜을 넘어서 교육 뉴딜을 포함하는 새로운 모델의 Korea 뉴딜로 재구성되고 이를 위한 정부와 민간의 노력이 모여진다면 국가발전에 한발 더 의미 있는 정책으로 발전할 것이다. 이를 위한 학계와 정부, 그리고 산업계의 인식과 노력이 시급하게 요구된다. 특별히 본 연구에서 제시된 교육 뉴딜의 실현을 위해서 시범사업을 위한 테스트베드를 마련하고 대국민 홍보 및 참여를 위한 다양한 플랫폼과 공모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교육부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하는데 이를 위한 교육부 내의 한시적 테스크 포스나 전담팀을 구성하는 것도 매우 효과적이라고 판단한다.

참 고 문 헌

강혜규 외,「사회서비스 정책 전망과 과제」,『보건복지포럼(2019.1)』, 2019, 7-18.
관계부처합동(2020),「한국판 뉴딜」종합계획-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으로 대전환 -, 2020년7월14일.
고길곤·김대중(2017),『저출산·고령화 모니터링 지표 개발을 위한 조사연구』, 감사원.
기정훈·허근숙(2009),「인적자본 집적도시의 형성과 성장에 관한 연구 -준-실험계획법을 통한 도시군(group)간 비교연구-」,『도시행정학보』제22권 제2호, pp. 31-56.
기정훈(2020).『에듀(교육) 뉴딜 없이 K(디지털+그린) 뉴딜 성공 없다.』, 한국지역개발학회 정책세미나,「교육 혁명과 K 뉴딜의 성공조건」, 2020년7월29일.
이재윤(2020), 한국판 뉴딜 정책 추진 내용, 연합뉴스, 2020년6월1일.

(논문접수일: 2020. 10. 11 / 논문수정일(1차: 2020. 11. 9, 2차: 2020. 11. 19) / 게재확정일: 2020. 11. 19)

※ **기정훈(奇正勳)**은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에서 도시계획학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미국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에서 도시계획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는 명지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양주시 도시계획위원, 서대문구 도시계획위원, 한국지역개발학회 총무이사, 인간식물환경학회 편집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주요 연구분야는 국토 및 환경정책, 통일국토전략수립, 농촌과 농업정책, 보건 및 의료정책, 빅데이터 및 지리정보시스템이다. 최근 논문으로는 "Impact of Nuclear Tests on Deforestation in North Korea using Google Earth-Based Spatial Images(2019)", "A Study on the Differences in Perception among Experts and Public Officials for the Executive Agent of Environmental Affairs and National Policy Tasks(2019)", "공무원의 빅데이터 생태계 및 활용 인식 연구 -빅데이터 및 정보화 관련 담당자를 중심으로-(2019)", 그리고 "빅데이터 분석을 이용한 환경사무의 사회적 평가(2018)" 등이 있다(johnki@mju.ac.kr).

※ **조덕호(曺德鎬)**는 서울대학교 환경계획학 석사 졸업(도시계획)하고 미국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에서 박사(Ph.D. Urban and Regional Planning)학위를 받았다. 현재는 대구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현재 한국지역개발학회 회장(2020.03~ 현재)를 맡고 있으며, EAROPH 한국지회 부회장(2014~2015), 한국정부학회 회장(2010-2011), 대한지방자치학회 회장(2008-2009)을 역임했다. 최근 논문으로는 "농지연금 도입방안(2008)", "주택연금 도입방안(2004)" 등이 있다(chodh@daegu.ac.kr).